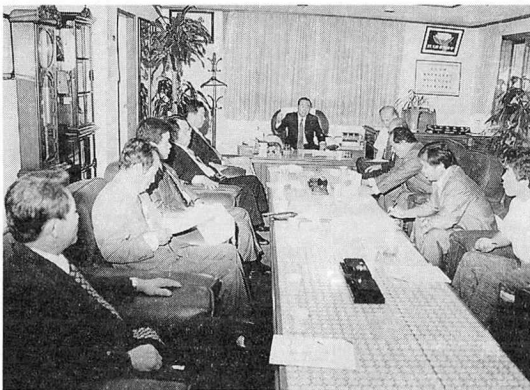


협회소식

'94 전국양돈인대회 11월 11일 개최

- 회장단 및 도협의회장 회의 개최



본회는 9월 14일 오전 11시 본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전동용회장과 이명복, 최상백, 기정도부회장 및 각 도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및 도협의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동용회장의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3월부터 지금까지 산지돼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양돈농가의 인력난, 올 여름의 폭염, 질병 등으로 생산비가 상승해 실제 양돈농가의 소득은 줄어 들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돼지고기 수입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 6일 임원 및 지부장 회의에서 결의한 사료에 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의 조속한 관철

을 위해 4대 일간지에 성명서를 게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각 지부의 신문광고료 수납 실적이 저조하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성명서를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고료 수납률은 9월초 현재 88개 지부중 30개지부가 납부해 34%의 납부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회의의 결정으로 이미 납부한 지부는 다시 돌려 주기로 하였고 차후 낙농육우협회와 양계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와 협의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 전국 양돈인대회 개최를 국제기계기구 박람회 개최 기간인 11월 7일~11월 13일 사이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행사의 세부 계획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양돈인대회를 11월 11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SPF 강습회를 10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자조금제도 입법화 공청회도 근간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하이브리드돈 수입 움직임과 관련, 혈통등록이 되지 않은 돼지가 농가에 마구 공급돼 농가피해가 있으면 안된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 양돈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 돼지고기 수입 억제 요청

물가안정을 빌미로 정부가 취하고 있는 돼지고기수입정책에 대해 본회는 지난 8월 31일 농림수산부에 돼지고기의 수입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서에서 금년들어 외래성 질병인 자돈의 전염성하리(PED)에 의해 양돈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이로 인해 돼지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온게 사실이나, 올 여름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염으로 육성돈의 사료섭취 감소 등으로 성장이 지연되어 출하역시 지연되고(사육기간 연장) 있는 등 양돈농가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건의서는 또 요즘 양돈산업 현장은 인력난, 분뇨처리, 방역위생비 등 생산비 상승과 연관되어 최근 높은 돼지가격 형성에도 불구하고 양돈농가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더구나 '97년 돼지고기의 완전수입 개방을 앞두고 양돈농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번 폭염피해로 양축농가들은 매우 지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회는 추석물가 안정만을 위해 질병, 폭서 등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돼지고기를 무제한 수입 방출하려는 정부의 물가대책 발표는 양돈농가의 마지막 희망마저 상실케 하여 생업을 더이상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에 대해 양돈업계의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감찰하여 돼지고기의 수입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정식 건의했다.

본회, 무등록 생돈의 수입억제 건의

본회는 지난 9월 24일 근간 일부 양돈업계에서 등록되지 않은 생돈(순종 및 하이브리드돈)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농림수산부에 수입 억제를 정식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서에서 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혈통이 등록된 종돈(약 300두)과 수입 추천없이 생돈으로 수입하려는 순종돈(약 1,300여두)에 대해 수입추천돈은 종래의 수입종돈과 다를 바 없으나, 수입추천없이 생돈으로 수입되는 것 중에는 순종돈이 있을 수 있고 하이브리드돈도 있을 수 있으며, 이와같이 등록되지 않은 생돈으로 수입되는 순종돈이나 하이브리드돈이 국내에서 번식하여 보급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종돈 유통질서의 파괴로 양돈농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본회는 혈통이 등록되지 않고 생돈으로 수입된 순종돈이나 하이브리드돈의 수입억제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였다.

제3회 서부경남 5개 시·군 양돈인대회 개최



본회 산청지부(지부장: 진용길)는 지난 9월 9일 경남 산청군 청소년수련장에서 제3회 서부경남 5개 시·군 양돈인대회를 개최했다.

본회 최상백부회장, 노영한전무, 하오조 경남도협 의회장, 조옥봉 경북도협 의회장, 윤학기 산청축협조합장, 이우욱 경남축산과장을 비롯 5개 시·군 지부회원과 지역축산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돼지고기의 완전수입개방에 따른 양돈선진화를 이룩하고자 ▲맑고 깨끗한 우리

강산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며, 축산 폐수를 무단방류치 않을 것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양질의 돈육생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사료 등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축산폐수 정화 시설 자금 지원 확대, 축산관련 자금을 축종별로 추천·선정, 젊고 유능한 축산인들에게 획기적으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열린 2부 행사에서는 바베큐시식회, 체육행사, 노래자랑 등을 통해 각 지부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한편 노인한 지역국회의원과 김천지부에서 축전을 보내왔으며, 내년 함양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대회를 마쳤다.

전북, 충북·남, 경북·남, 경기도 협의회 개최

본회 각 도협의회는 8월과 9월달 전북, 충북·남, 경북·남, 경기도 도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동용회장과 노영한전무는 각 도협의회의에 참석, 최근 양돈업계 동향과 업계현황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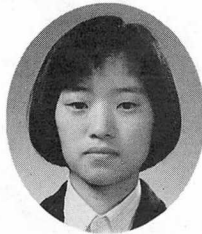
도협의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최근 정부가 물가대책 가격안정을 빌미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양돈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하며, 앞으로 돼지고기 수입계획 재고 및 축산 폐수처리문제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업·회·단·신

본회 신규직원 채용



유재도씨



김미라양



박래라양

본회는 지난 7월 9일과 8월 5일 총무부와 홍보부에 김미라(23)씨와 유재도(28)씨를 새로 채용했다.

김미라씨는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철망공업(협)에서 근무하였고, 유재도씨는 건국대학교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한편 총무부와 홍보부에 근무하던 류재연씨와 박정렬씨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

김천지부 직원채용 및 FAX 설치

김천지부(지부장 : 유진현)는 지난 8월 18일 지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박래라양(김천전문대 전산학과 재학중, 21) 채용 및 FAX를 설치하였다.

FAX번호는 다음과 같다.

▲FAX : (0547)33-8144

